

속성주의 그늘 뛰어넘은 문제작들

이호철·이청준·한승원의 새 작품을 중심으로

하응백
문학평론가

문학의 물신화 경향

780년대 이후 우리소설은 양적인 면에서 엄청난 팽창을 경험했다. 정치적 목적주의를 부르짖는 문학진영의 큰 목소리를 전적으로 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든, 그것에 짓눌려 있든, 그 위세에 의혹의 눈길을 던지며 고유한 자기세계의 성체에서 한 우물과기를 계속 하든간에, 우리소설은 상업주의라는 꼬리표를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간직하며 독자들에게 전과되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세계관에 입각한 일련의 소설들도 기실은 자본주의의 유통망 속에서 독자들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상업주의라는 거대한 물신상은 기존의 문학 판도를 내적, 외적으로 상당히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가속성은 날로 점증되는 실정이다.

문예지나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거나 연재되었던 소설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던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이제 소설은 전작의 형태를 띠고 독서시장에 직접적으로 거침없이 선보인다. 전작소설이 출판되는 관건은 문학성이 아니라 상업성이다. 이 소설들은 비평이라는 문학 내부적인 자기검열제도를 거의 무시하고 출판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여 T.V매체까지 포함한 다양한 광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직접 접근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자본주의의 고전적 철칙이 문학판에서도 관철되는 것이다.

이제 문학은 문학적 성취도와는 거의 무관하게 출판사의 판매전략과 광고에 의해, 소비자의 저급한 흥미나 기호에 얼마나 영합하는가에 의해, 그래서 결국은 판매부수나 인세의 고저로 그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경향이 팽배하는 실정이다. 중고생의 낙서물과도 흡사한 시집류가 출판사의 장삿속을 만족시킨다. 시집보다는 훨씬 상품가치가 높은 소설들이 특히 몇천 이상의 대작, 대하 소설류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어지간한 소설가라면 누구나 「장길산」이나 「태백산맥」식의 대하장편소설을 꿈꾼다. 그 소설들이 전범이 되는 이유는 문학적성보다 판매량 때문이다. 부동산투기의 한탕주의 열풍처럼 출판사나 작가도 한탕주의의 열망에 몸살을 앓는다. 컴퓨터나 워드프로 세서는 작업 속도를 현저히 증가시켰고, 따라서 그것들은 물량 공세의 숨은 공로자들이기도 하다. 영향력 있는 일간지나 잡지의 문예 기사들도 이 상업주의에 발빠르게 가세한다.

나를 포함한 평자들도 여기에 가담한다. 학연, 지연에 편승하고 비중 있는 잡지나 출판사의 청탁에 호응하여 작품의 과대포장에 일조한다. 평자들은 출판사나 문예담당기자들이 간접적인 책광고나 신문독자들의 흥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판세를 짜놓은 문학논쟁에 뛰어들기도 한다.

1920년대 중반의 계급문학시비론이나 내용·형식논쟁 이후 참여·순수논쟁, 리얼리즘 논쟁,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논쟁 등이 우리 문학의 내실을 가져온 자양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논쟁들은 인신공격 또는 자기 주장의 고루한 고수라는 논쟁의 구태의연한 악습에서 한걸음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장안의 지가를 올리기 위해 급급한 측면도 없지 않다. 문학적으로 무소독한 논쟁에 대한 바람직한 예외도 있긴 하다. 정력적이고도 노회한 한 비평가의 좌충우돌식의 소설가에 대한 발빠른 항복선언은 상업주의에서 그의 도도한 학문적 업적을 지키기 위한 심려 원모였음을 간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굴욕적으로 보이는 그의 포석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또 소설의 판매부수를 올리기 위한 한 전략으로서의 문학상이나 이런 저런 문단계보끼리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 갈라먹기식의 문학상 수여도 간접적으로 상업주의에 기여한다. 요컨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나면 현금의 문학판은 양적 팽창과 더불어 마치 문학 종사자들의 생존권 지키기에, 나아가 부의 획득과 축적에만 탐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상업성에 저항하는 90년대 작가들

자본주의 제도에서 상업성이란 부정할래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문학은 종교와 철학과 함께 자본주의 혹은 여타의 사회제도나 체제가 가져다 주는 비인간적인 요소들로부터 인간성을 고수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문학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 정치적·경제적 억압, 상업성, 물신성 등에 저항한다. 그것은 인간의 참자유찾기를 위한 언어를 매개로 한 언어 이상의 작업이다. 케케묵은 공리주의라 할지 모르지만 이윤추구가 사회적 활동의 주동기가 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문학은 이윤추구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독자의 영혼과 정신을 상대로 하는 영속적인 작업이기 때문

60년대 이후 우리 소설의 중심추를 견인해냈던 몇몇 중견작가들은 작금의 우리 문단에 팽배해 있는 상업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여전히 일관성 있게 자기세계를 천착하거나 고수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이호철, 이청준, 한승원의 작품들이 새삼스런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이들이 문학의 물신화에 대한 '묵직한' 대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다. 공업용 우지가 원료가 된 식품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듯이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문학 역시 문학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저급한 문학은 정신의 마약으로 작용해 독자를 미혹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상식적인 당위론에만 있지 않다. 상업주의의 폐해를 소설가나 평자들, 이른바 문학 종사자들이 확연히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문학판은 자본의 논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구름을 제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90년대 들어 대내외의 일련의 정치적인 변화와 맞물려 일부 젊은 평자들에 의해 '문학의 위기'나 '전환기'니 하는 각성의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는 이유도 문학의 중심점 상실과 아울러 문학 자체의 물신화경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추세 속에도 일부 낙관적인 전망은 있다. 문학의 물신화나 상업화라는 자본주의적 경향에 대해 그 자체의 논리나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소설들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값진 전망 중의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 우리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파헤치고 그 부정성을 발가벗기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중심의 신화에 과감히 도전하는 양비론적인 소설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비교적 젊은 세대인 구효서, 최수철, 최윤, 하창수, 박인홍, 박상우, 이승우 등의 소설에서 90년대적인 고뇌의 방식을 엿볼 수 있음은 일견 다행이다.

한편 상업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자기세계를 천착하거나 고수하는 묵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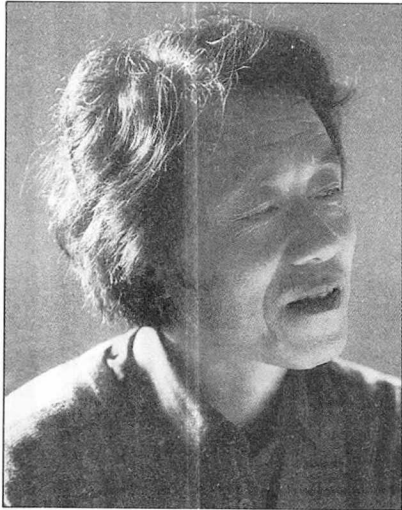
이청준씨.

작가들이 있다. 60년대 이후 우리 소설의 중심 추를 견인해냈던 이들 몇몇의 작가들은 여전히 끈질기게 자기 성체의 무거운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비록 느린 발걸음으로라도 견고하게 쌓아나간다. 김원일, 서정인, 전상국, 이호철, 이청준, 한승원 등이 당장에 손꼽을 수 있는 이름들이다.

속성주의 뛰어넘은 장편소설 몇편

“이 책을 김일성 주석 부자에게 드린다.”라는 특이한 헌사가 달려 있는 이호철의 「개화와 척사」는 얼핏 「구운몽」이나 단재의 「꿈하늘」을 연상하게 하는 몽유록계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익종(효명세자, 순조의 아들, 22세로 요절)과 박규수(개화파의 선각자, 개항과 일본과의 수교를 주장함)를 정점으로 하여 死者들의 토론회 형식으로 전개된다. 토론에 참석하는 사자는 김옥균, 박영호, 박은식, 신채호, 유인석, 이승만 등등이며 거론되는 인물은 김일성과 박정희에까지 이르는 수많은 근현대사의 실존 인물들이다.

「금수회의록」과도 흡사한 구조를 가진 이 소설의 주된 관심사는 분단의 원인 규명과 통일을 위한 대비책의 제시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개화와 척사라는 이분법으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나누고, 수많은 등장 인물 또한 이 이분법의 항목 속에 집어 넣는다. 개화파의 계보 속에 박규수, 김옥균, 박영호, 안창호, 이승만, 박정희 등등을 놓고 현재의 난한 정권의 역사적 입지가 바로 개화파의 연장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 최익현, 박은식, 신채호, 유인석, 김일성 등등을 북한 정권의 맥락 속에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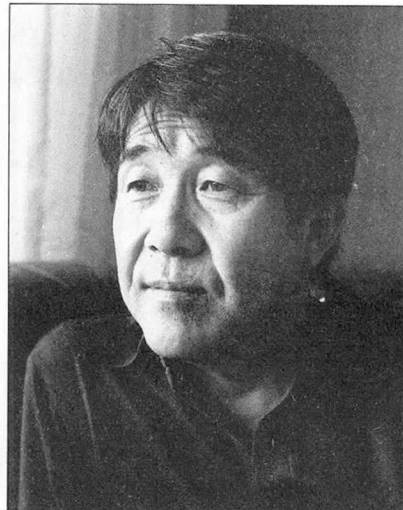


한승원씨.

한다.
 위정척사운동이 의병투쟁으로, 일제 말기의 항일무력투쟁으로 명맥을 유지하여 김일성 정권을 창출했다면 개화운동이 문화계몽운동으로, 물산장려운동 등으로 발전하여 이승만 정권을 배태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은 기존의 분단원인설(강대국 책임론, 계급대립원인론 등)과는 달리 사상사적, 정신사적 맥락에서 분단의 원인을 찾고, 또 그러한 입지점에서 통일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는 작가의 통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개화와 척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90년대가 되면 척사와 개화가 만날 시점이 되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권력의 똌, 독선의 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를 '개화' 쪽으로 끌어내되 척사파들이 연면하게 이어온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살려지는 선'에서 '새로운 지표가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일지는 몰라도 이미 진부하며 더욱이 관념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몽유록 형태의 통일을 위한 정치소설은 도식적 이분법과 과도한 관념성으로 인해, 작가가 서문에서 밝힌 "분단질곡을 뚫어낼 초미한 메시지"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작가의 문학 정신과 문학적 실천이 40년이 가까운 세월 속에서도 일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모험의 위험성을 넘어선다.

7여년간의 작업 끝에 2권으로 완결된 이창준의 「人間人」은 작가 특유의 사변적인 끈적거림이 해남 대원사를 무대로 추적자와 도피자의 삶에 깊은 음영을 드리면서 전개된다.



이호철씨.

1권 「아리아리랑」은 일제 말기를 배경으로 한다. 일제 경찰의 밀정 도둑은 쫓기는 자로 위장해서 대원사로 잠입한다. 그는 직속상관인 광주경찰서 정보과 김홍일의 지령에 따라 절 주변에 숨어 있는 불순분자들을 은밀히 내사하는 동시에 '소영각'이라는 불전의 비밀을 캐내기에 주력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고 본서로 송환된다. 해방후 부친의 음덕으로 친일파로 단죄됨을 면한 그는 경찰에 재임용된 김홍일의 도움으로 목포에서 수사관으로 발탁된다. 6·25전쟁으로 목포가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자 그는 대원사로 도피한다. 주지 우봉스님의 배려로 그는 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소영각의 지하 밀실로 인도받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쫓고 쫓기는 자신의 삶의 無名을 깨닫는다.

「개화와 척사」 「人間인」 「해일」

2권 「강강술래」의 무대 역시 소영각을 중심으로 한 대원사이다. 유신말기와 광주항쟁 직전 대원사는 일제말과 마찬가지로 시국사범들의 은둔처가 된다. 2부의 주인공 안장손은 도박과 사기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도피자이다. 그는 대원사에서 고행정진하는 무불스님의 가식을 벗기기 위해 고심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속됨과 미혹을 벗고 도피자들의 위안자나 보호자 역할을 해내며 삶의 보람을 찾는다. 무명의 어둠에서 해매던 미혹한 '인간' 장손이 무불스님의 인도로 신망과 인정을 갖춘 '人間인'으로 탈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손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려는 여인을 광주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으

로 차안에서 숨을 거둔다.

이 소설은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민족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나 한을 대원사 소영각이란 무대장치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순탄하지 못했던 역사적 노동에서 正體가 만든 법과 질서는 그 자체가 한 인간 인간에게 억압이 되며 쫓고 쫓김의 어리석은 미혹을 낳는다. 역사와 일상의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인간성을 되찾는 길, 그것이 「人間人」의 참된 주제이다. 불교적이며 정치적이면서 역사적이기도 한 이 소설은 장손의 죽음과 새 생명탄생을 말미에 보여줌으로써 광주 이후의 민족의 인간인되기과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한승원의 3부작 「해일」은 기왕에 발표된 세권의 소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덕도라는 남해안의 바다를 무대로 한 우리의 원체협적인 삶의 질곡과 한의 근거를 작가 특유의 암울한 바다빛깔로 채색하여 보여주는 작품이다. 1부의 기본축은 최봉일로 대표되는 양반과 윤판철로 대표되는 천민과의 계급대립이다. 이 대립은 조선조 말기의 양반과 상놈, 식민지시대의 지주, 소작의 도식을 뛰어넘어 바다 자체의 거친, 그러면서도 가장 토착적인 생명성의 개진으로 나아간다. 또한 꽃단이 무당이나 정화 무당뿐만 아니라 등장 인물 모두에게 육화되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한국인의 보편적 심성 근거에 부딪히면서 그 작품성을 획득한다.

2부에서는 1부의 후손들이 응달개포라는 삶의 현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다툼을 묘사하고 있다. 이 다툼은 계급대립의 양상보다는 생존권 확보가 주원인이다. 하지만 응달개포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검은 손에 의해 제 3자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 과정에서 대립의 주역 칠보와 질만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잃는다. 적은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목졸랐던 것이다. 이 둘은 다같이 피해자로 남는다.

3부에서는 현대사의 부정적 요소의 풀림과 대립적 인물간의 화해를 그 목표로 삼는다. 그 화해의 상징적 절차가 윤수진과 최희심의 혼령결혼식이다. 3부에서 중요인물은 배다른 오누이 희수와 용녀이다. 용녀에 대한 애정으로 몸겨워 하는 희수는 마을의 해묵은 대립을 해소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용녀는 「해일」이라는 소설이 변방의 작은 섬마을에서의 화해라는 표면적 이야기를 넘어서 광주항쟁 이

후의 민족적 갈등의 해소라는 궁극적인 주제를 위해 설정된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관련된 원죄의 아픔을 육화하면서 무속적인 차원, 즉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의 근저에서 민족적 비극을 살풀이한다. 그녀의 신내림 이전의 근원적인 아픔이 회숙의 한(섬)과 광주의 한에 함께 연결되어 있음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의 공통분모인 집단무의식을 통해 민족적 상처의 어루만짐, 이것이 「해일」의 최종적인 메시지이다.

견고히 자기세계 구축한 문제작들

왜곡된 근현대사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통일 방안을 제시한 「개화와 척사」, 역사의 질곡 속에서 쫓고 쫓기는, 결국은 모두 쫓김 당해 지하의 밀실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뼈아픈 삶을 제시한 「人間人」, 바다라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 있는 에로스샤마니즘을 통해 한의 맺힘과 풀림을 제시한 「해일」은 우리 문단에 팽배해 있는 상임주위의 속성주의의 그늘을 뛰어넘는 문제작들이다. 「人間人」과 「해일」의 말미가 모두 광주에 닿아 있음도 이들 작가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늠해 주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주는 기쁨
 선택하는 즐거움
 도서상품권